

야외예배

2015.10.11



오늘은 백운교회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떠나는 날... "선생님 언제 도착해요?" 한 시간 반 동안 아이들이 스무 번도 넘게 묻는 말이다. 양평 임실치즈 마을에서 치즈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또 직접 치즈와 피자도 만들어 보았다. 피자와 돈가스와 스파게티로 배를 불리고 만든 치즈는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가져다 준다고 아이들이 알뜰히 챙겼다. 우리는 곤충박물관도 들렀다. 다양한 곤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씨를 새삼 느꼈다. 우린 잔디밭을 타러 갔다. 아이들은 그래도 아쉬운 표정들. 우린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돌아왔다.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 백운의 모든 어린이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곧게 잘 자라기를 기도한다. <최현미 선생>



숨은 그림찾기 응모 시상(10)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1월29일 마감/추첨)
<힌트 : 나는 머리띠를 하고 있으며 수염이 없고, 내 옆에 있는 루우벤 형은 얼굴에 점이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중 한 인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1.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2.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 : 나는 머리띠를 하고 있으며 수염이 없고, 내 옆에 있는 루우벤 형은 얼굴에 점이 있어요.)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1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행사 화보 모음



▲교회버스구입 감사예배 : 지난 8일 차량감사예배 후 시승식을 갖고 무사고를 기원했다.



▲속장 위로회 : 지난 29일 속장들의 노고에 위로하기 위해 가을나들이를 대둔산으로 다녀왔다.



▲충북서지방 여선교회 계삭회 : 지난 14일 본 교회에서 서지방 계삭회를 많은 교우들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소 천

▲김한연 목사(이신호권사 모친): 10월26일 소천. 제천장례예식장. 발인예배 10월28일(수)오전 7시30분.

10월호 정답자 발표(9)

10월호 추천결과 ▶안중숙(원서) ▶조영숙(금성)▶하진영(원서)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2015년
"섬기자,하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이웃을!"

백운향 11월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마음의 거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지하철의 노약자 석에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올라탔지만, 아가씨는 모른척 하면서 눈을 감고 잠자는 척 했다. 간간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아가씨의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와 장애인 지정석이라는 거 몰라?"
아가씨 :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가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오게 되었다. 한참 인도를 따라 오다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도에 웬 이정표 간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인도에 간판이 세워져 있지? 그러면 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인도가 있는데 이 간판이 세워졌을까? 간판이 있는데 인도가 만들어 졌을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도의 간판



이 지금은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리하고 있는 곳, 내가 먼저 자리 잡은 곳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차지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담임목사 신상균>

추수 감사절

Happy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4~5>

일시	2015년 11월 15일(주일) 저녁 7시
장소	백운교회 본당
순서	팀별 추수감사절 발표회